

외신 "'한국의 트럼프' 尹, '불행한' 청와대 버리려고 4 천만 불 이사".. '풍수(風水)까지 언급'

'영국 인디펜던트 "尹 용산 이전으로 민심 분열"', '매체, 尹측 입장보다 반대측 입장을 비중있게 다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3:36]

본문듣기

가 -가 +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이 풍수지리 등 무속과 관련 있다는 내용으로 해외에 보도되고 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지난 21 일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행한 청와대를 버리기 위해 4 천만 불짜리 이사를 한다 (South Korea's president-elect to abandon 'unlucky' Blue House in \$40m move)'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기사에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결심에 한국 민심은 분열되었다 (a move that has divided the Korean Public)"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선 전 윤 당선인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렸었다(Mr Yoon, dubbed the "South Korean Donald Trump)"고 강조했다.

또 '보수적인 전 검찰총장(the conservative former top prosecutor)'이라고 윤 당선인을 지칭하며 "윤 당선인이 현 청와대 위치와 디자인이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을 단절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 합참본부 자리는 축복받고 겸손하며 상서로운 곳(blessed spot... humble yet auspicious)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청와대 자리는 지난 25 년 간 6 명의 대통령이 죽거나 감옥으로 가게 된 불길한(inauspicious) 자리라고 주장한 풍수단체 대표와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매체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며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해명도 같이 실기는 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풍수 도사의 영향을 받았으며(after being influenced by masters of feng shui) 약 500 억 원이 들어간다'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집무실 이전보다 코로나 19 방역에 같은

위급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집무실 이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은 물론 윤 당선인 측이 예상한 이전 비용보다 20 배나 많은 1 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반대 측 입장을 더 비중 있게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보도를 한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지난 1 월 17 일에도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고 대선 후보 배우자가 주장했다 (South Korean candidate's wife says #MeToo complaints occur when men don't pay women)"라는 김건희 씨 비판 기사를 실기도 했다.